

자기소개서

전바울

안녕하세요.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전바울입니다.
원활한 소통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팀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SAP 분야로 입사한 후 웹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프론트엔드 개발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6개월간 진행하면서 프론트엔드 업무에 적응을 강하게 느껴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전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저의 주 업무는 Vue.js (Nuxt.js) 기반으로 파이썬 Django로 구축된 백엔드와 데이터를 통신하며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컴포넌트화, 상태 관리 등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들을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Axios를 사용하여 백엔드와 기본적인 HTTP 통신을 하는 것을 익혔고 수월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SQL 기반으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접하며 기초적인 Query도 작성해보며 DB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개발 외적으로는 매일 아침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진행하는 등 짧은 주기로 개발하고 피드백을 얻는 애자일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포함하여, 백엔드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방면의 시각과 의견을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하며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의 주력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는 HTML, CSS, JavaScript, React입니다.
React hooks, Context API 같은 개념들과 더불어 Redux 등의 주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학습하고 직접 적용해보며 React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자바스크립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입스크립트도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Sass 또는 Styled-component와 같은 CSS preprocessor를 사용하여 트렌디하고 효율적인 스타일링을 선호합니다.
백엔드 관련해서는 프로젝트에서 얻은 SQL 경험 외에 개인적으로 Firebase와 MongoDB를 통해 NoSQL 기반 데이터베이스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UI/UX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Adobe XD, Figma와 같은 툴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기초적인 프로토타입 작업도 다루어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핵심적인 덕목 중 하나는 사용자의 편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더욱 즐거운 사용자경험을 위한 구조와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
프론트엔드는 다양한 직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만큼 언제나 명확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10년간의 해외 거주경험을 통해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구사하며, 국내외 트렌드와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 팀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어넣는 팀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집착하고 노력하는 개발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